

소상공인·소기업, 라이브커머스 날개 달고 판매 '훨훨'

'동행세일' 기간 중 적극 활용
수수료, 제작비 등 문턱 낮아
전통시장 먹거리 성과 확인
민간 플랫폼 연계 판로 확대

'라이브커머스'가 전통시장, 소기업
등의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대안 채널
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
이다.

라이브커머스란 전문 쇼호스트나 셀
럽, 유튜버 등이 실시간으로 제품을 시
연하고, 라이브 채팅을 통해 소비자와
소통하며 제품을 홍보·판매하는 것을
말한다. '모바일로 보는 TV홈쇼핑'으
로 양방향 소통이 강점이다.

TV홈쇼핑 등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,
제작비도 저렴한 등 입점이나 판매를
위한 진입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.

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
(코로나19)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늘어
나면서 기존에 온라인 판매가 쉽지 않
았던 전통시장의 먹거리, 소기업이나
소상공인이 만든 각종 공산품이 라이브



조명래 환경부 장관(가운데)이 '대한민국 동행세일' 기간인 지난 10일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,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. /중기부

커머스를 만나면서 온라인 판매가 늘어
난 것도 한 몫을 했다.

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
터, 공영쇼핑 등과 함께 예산, 행정력을
동원,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전통시장·
소상공인·소기업 등이 또 다른 활로를
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기로
했다.

롯데·현대, 신세계 등 백화점을 운영
하고 있는 유통기업들도 최근 들어 라
이브 커머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
습이다.

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17
일간의 '대한민국 동행세일'에서 거뒀
던 라이브 커머스 성과를 바탕으로 중
기부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온라인 플
랫폼 '가치삽시다'를 더욱 활성화시켜
나갈 계획이다.

중기부 이준희 온라인경제추진단장
은 "가치삽시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
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중"이라며 "가치
삽시다'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만큼 이
번 동행세일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동참
했던 티몬, 네이버, 11번가 등 민간 플랫

폼과도 연계해 물건을 공급하는 소상공
인과 제품군을 대폭 늘려 이들의 판로
확대에 도움을 줄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중기부의 경우 가치삽시다를 중심으
로 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
해 올해 당초 배정된 313억원 예산 외에
도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5억
원을 더 확보해 높은 상태다.

중기유동센터는 촬영, 편집, 작가 등
라이브 커머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
력 25명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. 소
상공인방송정보원도 관련 인원 25명을

채용한다.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
추가 채용키로 한 1500명의 청년 일자
리 가운데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도 포
함돼 있다.

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하나인 공
영쇼핑도 앞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사
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.

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지난 9일 가
진 개국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"T
V라는 틀을 벗어나다 양한 고객들의
니즈에 발맞춰 딤플종 소량생산 제품을
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할 계획"이라며

"이를 위해 상품기획과 방송제작을 1명
이 하는 MPD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"
이라고 말했다.

공영쇼핑은 지난해의 경우 17억원의
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
준비해 왔다.

한편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중 정
부 부처 장관들이 연달아 라이브 커머
스에 직접 출연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
제품을 판매하고 나선 가운데 조명래
환경부 장관도 7번째로 '완판 장관'에
이름을 올렸다.

조 장관은 지난 10일 라이브 커머스
를 통해 업사이클링 상품인 에코백(119레
오)과 티셔츠(우시산)를 판매했다.

조 장관에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
관(6월26일),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·
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(7월1일), 허남
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7월
2일),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·성
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(7월3일)이
각각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해 역시 준
비한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성과를 거
뒀다.

/김승호 기자 bada@metroseoul.co.kr

온라인서 물 만난 전통시장... 판매 15% 쑥

동행세일 기간 매출 급증
온라인 본격 진출 방아쇠

전통시장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
해 매출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엿보이
고 있다.

지난달 26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
'대한민국 동행세일' 기간 중 전통시장
의 온라인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
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.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동행세일
기간에 진행한 온누리 전통시장관 매출
이 1주차에 6억6237만원으로 직전 1주
일 매출(5억7615만원)보다 15% 늘어
났다고 밝혔다.

특히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다양한 이
벤트와 할인행사로 올해 6월 현재 총
237억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
년 동기의 121억원에 비해 무려 96.3%
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'온라인 전통시장관'은 중소벤처기업
부와 소진공이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



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이 대전에 있는 도마큰
시장에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
고 있다. /소진공

진출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사용편의를
위해 민간과 협력해 구축·운영하고 있
는 것으로 민간 오픈마켓·온라인 쇼핑
몰·배달앱과 같은 플랫폼을 의미한다.

현재 온누리전통시장 등 총 11개 온
라인 전통시장관이 운영 중이며, 실제
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역 특산
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.

이날로 끝난 동행세일 기간 온누리
전통시장관에선 소비촉진을 위해 특별

할인전과 기획관을 운영했다. 구매고객
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도 펼쳤다.

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온라인 전통시
장관 입점한 전북 봉동시장 고주장, 충
남금산수삼센터 인삼, 서울마장동축산
물시장의 한우가 동행세일 기간 판매량
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"코로나19
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, 배달앱 등 비
대면 거래가 급증한 만큼 전통시장에서
도 비대면·온라인 장보기 확산을 위한
준비가 필요하다"면서 "소비자들이 온
라인에서 보다 쉽게 전통시장 상품을
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연계
를 확대하고, 결제편의를 제공하는 등
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
겠다"고 밝혔다.

아울러 올해 상반기부터는 모바일 온
누리상품권 온라인결제가 도입돼 향후
전통시장의 온라인 매출 확대에 긍정적
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/김승호 기자

한샘, 홈 인테리어 고객 대상 할인전

한샘은 자사 온라인몰인 '한샘몰'에
서 홈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
들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'혜택이 왔셨
다'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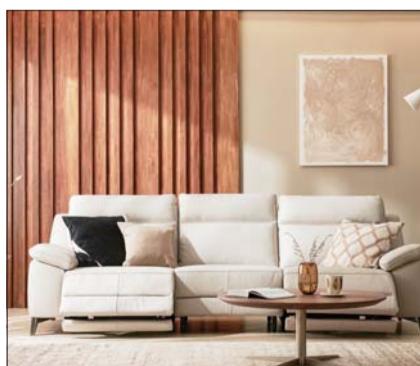
먼저, 한샘몰 첫 구매 고객에게는 관
련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
쿠폰을 증정한다. 기존에 가입했던 회
원들도 구매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
쿠폰을 받을 수 있다. 추가로 KB국민
카드로 결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
20만원 즉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또, 여름시즌 가장 많은 고객들이 찾
는 에어컨케어, 세탁기케어, 미세먼지

차단 방충망 등 '한샘홈케어' 상품들에
대해 할인 기간동안 최대 50% 싸게 판
매하고, 포토상품평을 작성하는 고객에
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.

기간별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'끌길
세일'도 진행한다. 침대, 드레스룸, 식
탁, 소파, 생활용품 등 '한샘몰' 20년 상
반기 인기 상품을 최대 75% 할인된 가
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. 할인 품목은 매
주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.

추가로 소파와 매트리스 구매를 고민
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체험 이
벤트를 진행한다. '한샘몰' 인기 상품인



2주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프라임 리클
라이너 소파. /김승호 기자

'하이소파', '프라임 리클라이너' 소파
2종을 2주동안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
고 '슬리핑코드' 매트리스는 90일동안
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다. /김승호 기자

시몬스는 경기 이천에 위치한 복합문
화공간 시몬스 테라스에 브랜드 청립
150주년 기념 팝업스토어인 '시몬스 하드
웨어 스토어'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.

이번 팝업스토어에선 '가드닝'과 '테
라스'에 어울리는 모종삽, 화분 등 새로
운 한정판 아이템을 공개한다. 이천의
명소인 시몬스 테라스에 위치한 만큼
지역 특성을 살려 시몬스 감성으로 패
키징한 이천쌀, 이천 특산물 캐릭터 배
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제품도 함께 선
보인다. 이밖에 각종 공구 및 문구류를
비롯해 코치 자켓, 티셔츠, 점프수트와
같은 패션 아이템 등 시몬스 하드웨어
스토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인기
아이템 역시 만나볼 수 있다. /김승호 기자